

## 유아의 정서지능과 관련된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 및 정서표현성

Maternal Behavioral Inhibition/Activation System and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  
Mediated by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김지현(Jihyun Kim)<sup>1)</sup>

정지나(Jee-Nha Chung)<sup>2)</sup>

민성혜(Sung Hye Min)<sup>3)</sup>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mediating effects of the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between maternal behavioral inhibition/behavioral activation system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Subjects were 138 4- to 5-year-old preschoolers (92 boys, 46 girls) and their mothers. The maternal behavioral inhibition/behavioral activation system was measured by BIS/BA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Behavioral Activation System, Carver & White, 1994),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was measured by the 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 (Halberstadt, 1995),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as measured by the Emotional Intelligence Questionnaire (Lee, 1998).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were that maternal positive expressiveness mediated the effects of maternal BIS on children's self-understanding and maternal negative expressiveness mediated the effects of maternal BAS on children's self-regulation.

**Key Words** :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행동 억제/활성화체계(behavioral inhibition/behavioral activation system), 정서표현성(emotional expressiveness).

<sup>1)</sup>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sup>2)</sup>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sup>3)</sup>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Kim,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jihyunkim@chol.com

## I. 서 론

1970년대 이르러 서구의 인지주의가 확산되면서 인간의 능력은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 노출과 함께 Salovey & Mayer(1990)가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으로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최근에는 인간의 능력이 사회·정서적 적응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경향이다.

정서지능을 처음 소개한 Salovey & Mayer (1990)는 정서지능이란 감정과 느낌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정서지능이 ‘정서의 평가와 표현’, ‘정서의 조절’, 그리고 ‘정서의 이용’ 영역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정서지능을 널리 보급시킨 Goleman(1995)은 Salovey & Mayer(1990)의 정의에 동의하면서도 그 구성영역에 대해서는 이들과는 다른 주장을 제기하였다.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이란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조정 및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느끼는 정서상태도 파악하여 인간관계를 원만히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하위 영역을 ‘정서의 인식’, ‘정서의 조절과 통제’, ‘잠재능력의 개발을 위한 동기화’, ‘타인과의 감정 이입’,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로 이루어진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Mayer & Salovey(1996)는 정서지능의 구성 영역을 재정립하여 그 영역을 ‘정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에 의한 사고촉진’, ‘정서적 지식의 활용’, 그리고 ‘정서의 의식적, 반영적 조절’의 4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후로 현재까지 정서지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서지능에 관심을 보이는 학자들은 정서

지능이 인간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정서지능은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가 다름을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감정과 정서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정서지능은 ‘가르치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한 느낌의 과정’에서 형성되어 진다(이병래, 1998; Salovey & Mayer, 1996). 유아기는 특히 대부분의 시간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의 ‘경험’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정서지능과 관련된 부모의 역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양육신념이나 가치관, 양육 스트레스 등의 양육 관련 요인, 어머니의 교육정도, 직업 유무, 연령 등의 인구학적 요인, 결혼 만족도 및 부부갈등 등의 결혼 관련 요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어머니 개인 특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연구자들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변인으로 어머니의 유전자 구조나 기능과 같은 생리적인 측면을 연구하는데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서 인간을 포함한 동물 적응 행동의 조절과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두 체계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그 하나는 유인물을 향해 다가가는 행동을 일으키는 뇌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혐오하는 유인물을 피할 수 있도록 행동을 멈추게 하는 뇌 체계이다. 유인물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행동체계를 행동 활성화 혹은 행동 접근 체계(BAS : Behavioral activation or approach system)라고 하고 진행 중인 행동을 멈추도록 해서 혐오적 결과를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행동 억제 체계(BIS : Behavioral

inhibition system)라고 한다(김교현 · 김원식, 2001). 이 두 체계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체계가 조화롭게 활성화되어야 행동의 적응성이 높아지게 된다.

행동억제 성향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Kagan, Reznick, & Snidman, 1988; Reznick, Kagan, Snidman., Gersten, Baak, & Rosenberg, 1986). 그러나 이러한 행동억제 성향이 비교적 지속적이어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된다(Brodberg, Lamb, & Hwang, 1990; Kagan et al., 1988; Kagan, Reznick, Clarke, Snidman, & Garcia-Coll, 1984; Reznick et al., 1986; Scarpa, Raine, Venables., & Mednick, 1997; Schwartz, Snidman, & Kagan, 1999)는 보고들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는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행동억제 성향은 동기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진다. 예를 들면, 행동억제 성향을 보이는 개인은 동기가 부족하여 쉽게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행동억제 성향을 적게 보이는 개인은 쉽게 일에 뛰어들며 어떤 환경에 대해서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경향을 Carver & White(1994)는 Gray(1994)의 동기 체계에 기초하여 행동 억제/활성화 체계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어떤 환경에 대해서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행동체계를 행동 활성화 혹은 행동접근 체계(Behavioral Activation or Behavior Approach System)라고 하고, 이와 반대로 진행 중인 행동을 멈추어 혐오적인 결과를 예방하거나 피하는 체계를 행동억제 체계(BIS : Behavioral Inhibition System)라고 하였다(김교현 · 김원식, 2001).

따라서 어머니가 맥락에 따라 효율적으로 뇌 체계를 활성화시켜 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도 상황적인 단서를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높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뇌 체계와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는 새로이 대두되는 잠재적인 과정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실질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유아의 정서지능과 관련된 어머니의 생애적인 영향 요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유아의 정서지능과 관련된 어머니의 또 다른 개인적 특성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들 수 있다. 정서 표현성이란, “비언어적, 언어적 표현의 지속적이고 지배적인 패턴이나 스타일”로 정의된다(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p.93). 정서 표현성은 오랫동안 철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나(예 : Allport & Veron, 1993) 최근에 와서야 개인이 정서와 정서 표현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맥락으로써 가족의 개념을 고려하게 되었다. 부모가 표현하는 정서에 따라 자녀는 상황에 따라 어떤 정서가 적절한지, 어떻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가족 내에서의 정서 경험은 모방이나 강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명명법, 해석 등과 같이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Halberstadt, 1991; Izard & Malatesta, 1987; Lewis & Michalson, 1983). 이러한 가족 내에서의 경험들은 여러 영역에서의 개인 내적, 대인 관계적 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는데(Cassidy, Parke, Butkowski, & Braungart, 1992; Halberstadt, 1991), 가족의 정서 표현성은 개인의 정서적 경험, 정서 표현성, 사회적 기술, 또래 관계와 연관된다(Halberstadt et al., 1995).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유아가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떤 정서가 적절하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아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기술과 연관된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Dunn & Brown, 1991; 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즉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하는 경우 유아는 자기 정서를 잘 인식하고 조절을 잘 하며 타인의 정서에 대해서도 적절히 인식하고 배려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반대로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하는 경우 유아의 정서지능이 낮아 자기 정서 인식 및 조절 그리고 타인 정서 인식 및 조절에 미숙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는 정서 표현성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 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교현·김원식(2001)은 행동 활성화 성향이 긍정적인 정서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행동 억제 성향은 부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하면, 행동 활성화 성향이 높은 개인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성취한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대, 열망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비교적 쉽게 경험하게 된다(이지혜, 2001). 따라서 행동 활성화 성향이 높은 개인은 과제 지향적이고 특정 활동에 잘 몰입하며 사회적 유능성이 높고 사회적응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Blair, 2003).

이에 반해 행동억제 성향이 높은 개인은 자연스런 상황에서조차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보이며(Gable, Reis., & Elliot, 2000), 불안을 유발하는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활동을 억제하거나 회피하고 각성수준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y, 1994). 또한 일상생활에서 무력감과 의욕 상실을 경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orr, Pickering, & Gray, 1997; Davidson, 2000). 이로 인해 민성혜·유영미(2006)는 행동 억제 성향이 높은 개

인은 어떤 일이든지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일관적인 행동 체계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활성화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쉽게 경험하고 자녀가 보이는 행동을 긍정적 결과와 연합시킴으로써 자녀의 긍정적이 발달을 돕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억제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불안, 위축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쉽게 경험하고 각성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등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것이다. 만약 행동 활성화체계가 높은 어머니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성을 보여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한다면, 유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아가 스트레스로 인해 과도하게 각성되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되며 어머니의 지시나 다른 정보들을 더 잘 처리하도록 동기화하여(Dix, 1991) 결과적으로 그러한 유아들은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다루는데 보다 능숙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비록 제한되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간의 관계를 연결 짓는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 체계와 정서표현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탐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개인 특성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와 정서표현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 경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는 정서표현성을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의 3개 기관을 임의 선정하여 만 4-5세 유아 총 138명(남아 92명, 여아 46명 : 4세 77명, 5세 61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기관의 교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하였고 교사를 통해 회수하였다. 어머니의 솔직한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회수 시에는 밀봉하여 회수하도록 하였다. 기관의 교사에게는 유아의 정서 지능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23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된 것은 141부였고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여 분석 가능한 것이 138부였다.

연구 대상으로 만 4-5세를 선정한 이유는 이 연령대의 유아도 자기 조절, 자기 인식과 같은 능력이 발달한다는 Reissland & Harris(1991), Wintre & Vallance(1994) 등의 연구에 근거하여 만 4-5세 유아들의 정서지능 발달 경로를 파악해 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 66.7%, 여아 33.3%로 남아가 더 많았고, 연령별 구성은 4세가 55.8%, 5세가 44.2%로 4세가 더 많았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73.2%, 어머니의 89.9%가 30대 이었다. 부모의 학력에서 아버지는 주로 대졸(64.5%)이 많았고 어머니도 대졸(58.0%)이 가장 많았다. 가계의 월수입은 300만원대(43.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0만원대(29.7%)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76만 4천원이었으며(통계청, 2007), 본 연구 대상 가정의 약 43.5%가 월평균 수입이 300-400만원 사이에 속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학력과 소득을 같이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 대상 아동의 가정은 중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2. 측정도구

#### 1) 어머니 행동억제/활성화체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독립적인 행동 억제 체계와 활성화 체계의 민감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arver & White(1994)가 개발한 BIS/BA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Behavioral Activation System)를 김교현·김원식(2001)이 번안하고 요인 분석한 것을 사용하였다. BIS/BAS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로서 행동 활성화 체계 민감성을 측정하는 문항 13개와 행동억제 체계 민감성을 측정하는 문항 7개로 되어 있다. 행동 활성화 체계민감성 척도는 보상에 대한 기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보상 민감성’, 바라는 목표를 추구하려는 강한 열망과 지속을 뜻하는 ‘추동’, 그리고 새로운 보상에 대한 열망과 잠재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접근의향을 뜻하는 ‘재미 추구’의 세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억제 체계 민감성 척도의 경우 한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이 되며 '나는 실수할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 '비판을 받거나 꾸중을 듣게 되면 나는 마음이 많이 상한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행동 활성화 체계가 .75, 행동억제 체계가 .73이었다.

### 2)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어머니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Halberstadt (1995)가 개발한 정서 표현성 척도(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를 김호정(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보고식이며 전체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표현을 하는지를 7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척도의 하위영역은 긍정적 정서 표현영역과 부정적 정서 표현영역으로 구성되며,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긍정적 영역 .94, 부정적 영역 .92로 나타났다.

### 3) 유아의 정서지능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이병래(1998)가 제작한 정서 지능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인식·표현능력 7문항, 자기조절능력 8문항, 타인인식 능력 7문항, 타인조절·대인관계능력 9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유아가 각 문항에 나타난 특성을 보이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자기인식·표현능력이 .86, 자기조절능력이 .95, 타인인식능력이 .96, 타인조절·

대인관계능력이 .88로 나타났다.

##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조사는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1개 유치원과 2개 어린이집의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용 질문지는 기관의 교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하였고 교사를 통해 회수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정서 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급의 주교사들에게 평정 척도 실시상의 유의점을 주지시킨 후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정서 지능에 대한 교사 평정은 선정된 학급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어머니용 질문지가 회수된 유아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 2와 관련하여 유아의 정서 지능에 대한 어머니의 억제/활성화체계, 정서표현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억제/활성화체계와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일련의 절차에 의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각 연구문제 별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표 1>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 관계 (N=138)

	1	2	3	4	5	6	7	8
1. 모억제	1.00							
2. 모활성화	.04	1.00						
3. 모긍정	.10	.30**	1.00					
4. 모부정	.33**	.26**	.14	1.00				
5. 자기인식	.07	.20*	.36**	.02	1.00			
6. 자기조절	-.18*	-.15	.15	-.27**	.02	1.00		
7. 타인인식	.05	.03	.19*	-.16	.43**	.13	1.00	
8. 타인조절	.09	.03	.26**	-.14	.47**	.14	.62**	1.00

\* $p < .05$  \*\* $p < .01$

어머니의 억제/활성화 체계와 정서표현성 그리고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 행동억제/활성화체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행동억제는 유아의 정서지능 하위 영역 중 자기 조절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r = -.18, p < .05$ ), 어머니 활성화체계는 정서지능 하위 영역 중 자기인식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20, p < .05$ ). 즉, 억제 성향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자기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활성화 성향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자기 인식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행동억제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영역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r = .33, p < .01$ ), 어머니의 활성화체계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영역( $r = .30, p < .01$ )과 부정적 정서표현영역( $r = .26, p < .01$ )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행동 억제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부정적 정서 표현을 많이 하고, 활성화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영

역은 자기인식( $r = .36, p < .01$ )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부정적 정서표현영역은 자기조절( $r = -.27, p < .01$ )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면 자녀는 자기 인식을 잘 하고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면 자녀가 자기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어머니의 억제/활성화 체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에 따라 어머니 억제/활성화체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행동 억제 성향은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 조절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17, p < .05$ ), 어머니의 활성화 성향은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 인식( $\beta = .18, p < .05$ )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동 억제 성향이 높아 불안이 높고 각성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자기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성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는 자기인식을 잘 하

<표 2>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억제/활성화체계의 회귀분석 (N=138)

정서지능	자기	자기	타인	타인
	인식	조절	인식	조절
억제/활성화	$\beta$	$\beta$	$\beta$	$\beta$
억제	.09	-.17*	.05	.09
활성화	.18*	-.15	.03	.03
R <sup>2</sup>	.04	.05	.00	.00
F	3.03*	3.81*	.25	.59

\* $p < .05$

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억제/활성화 체계는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인식 변량의 4%, 자기조절 변량의 5%를 설명하였다.

### 3.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영역은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인식, 자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각각  $\beta = .34, \beta = .18, \beta = .22, \beta = .29$ ),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영역은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각각  $\beta = -.29, \beta = -.19, \beta = -.19$ )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유아가 자기인식, 자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유아가 자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유아 정서지능 중 자기인식 변량의 11%, 자기조절 변량의 10%, 타

<표 3>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정서표현성에 대한 회귀분석 (N=138)

정서지능	자기	자기	타인	타인
	인식	조절	인식	조절
억제/활성화	$\beta$	$\beta$	$\beta$	$\beta$
긍정적 정서표현	.34***	.18*	.22*	.29**
부정적 정서표현	-.02	-.29**	-.19*	-.19*
R <sup>2</sup>	.11	.10	.07	.10
F	8.71***	7.62**	5.14**	7.74**

\* $p < .05$  \*\* $p < .01$  \*\*\* $p < .001$

인인식 변량의 7%, 타인조절 변량의 10%를 설명하였다.

### 4. 어머니의 억제/활성화체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회귀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매개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그리고 종속변인간의 상호상관이 유의해야 한다는 Baron & Kenny(1986)의 기본 전제가 충족되어야하므로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 중 자기인식과 자기조절의 두 영역만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어머니 행동억제/활성화 체계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활성화체계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영역을 통제할 상태에서는 유아의 자기인식을 예측하지 못했다. 반면, 어머니의 활성화체계를 통제할 상태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영역은 여전히 유아의 자기인식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활성화체계와 유아의 자기인식과의 관계는 어머니의



〈표 4〉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와 유아의 정서지능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검증하는 회귀분석표 (N=138)

종속변인/예언변인	$\Delta R^2$	$\beta$	df
자기인식/			
1단계 :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영역	.13***	.32***	138
2단계 : 어머니의 활성화체계	.01	.11	137
1단계 : 어머니의 활성화체계	.04*		
2단계 :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영역	.10***		
자기조절/			
1단계 :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영역	.08**	-.24**	138
2단계 : 어머니의 행동억제체계	.01	-.10	137
1단계 : 어머니의 행동억제체계	.03*		
2단계 :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영역	.05**		

\* $p < .05$  \*\* $p < .01$  \*\*\* $p < .001$

긍정적 정서표현영역에 의해 매개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억제와 유아의 자기조절이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영역에 의해 매개되었는지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억제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영역을 통제된 상태에서 유아의 자기조절을 예측하지 못했다. 반면, 어머니의 억제를 통제된 상태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영역은 여전히 유아의 자기조절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행동억제와 유아의 자기조절의 관계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영역에 의해 매개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개인 특성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와 정서표현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와의 관계에서 어

니의 정서표현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행동억제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영역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활성화체계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영역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을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행동억제체계는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조절에, 어머니의 활성화체계는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인식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동 억제 성향이 높아 불안이 높고 각성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자기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행동 활성화 성향이 높아 어떤 상황에서든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자기인식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 억제 성향이 높아 불안이 높고 각성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관계에

기여하게 되고, 유아의 개별화 과정을 방해하고, 결국은 지나치게 응석을 받아 주고 과잉염려하며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해치는 과보호 행동을 하게 한다(소언주, 2001). Levy(1970)는 자신이 불안한 어머니는 자녀가 접촉과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 자신의 자녀를 가까이 두려고 하고, 과도한 모-자녀 관계로 몰입하기 쉽다고 하였다. 오경자·양윤란(2003)도 억제 성향을 많이 보이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자신이 맡은 역할이나 일에 대해 수행 불안을 많이 경험하고 대인불안도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Shamir-Essakow 등(2004)은 억제 성향을 가진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취약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표상하여 자녀를 과잉보호하고 자녀의 독립성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자녀에게서도 억제 성향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도록 한다고 보고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행동 억제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임박한 위험에 대한 민감성(김교현·김원식, 2001)때문에 자녀를 과잉보호하고 자녀의 자율적인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여 지시와 통제를 많이 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유인가에 민감하고 긍정적인 결과와 연합되는 조건화를 생각하는 활성화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민감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성혜·김지현·정지나, 2007). Blair(2003)는 활성화 성향이 높은 개인이 특정 활동에 잘 몰입하고 유능성이 높으며 적응에서도 성공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활성화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가 새로운 행동을 보일 때 그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로 인해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으며 자녀에게 칭찬과 인정 등의 애정성이 포함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가 유아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관련된 어머니 변인으로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행동억제/활성화체계라는 생래적인 측면과의 관련성을 밝힌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가 유아의 정서 지능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가 유아의 자기 조절과 자기 인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특성 및 행동이 타인 조절과 타인 인식을 포함한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이지선·정옥분, 2002; Leen-Feldner, Zvolensky, Feldner, & Lejuez, 2004)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선행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게 나온 이유가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가 유아의 정서 지능 중 자기조절과 자기인식 측면과 관련이 있고, 타인조절, 타인인식 측면과 관련이 적기 때문인지 혹은 본 연구 대상에 속하는 중류층 유아에게만 해당하는 결과인지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유아를 표집하여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경험적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 체계의 설명력이 크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 체계가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아의 정서지능에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영역은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인

식, 자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을 유의하고 설명하였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영역은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긍정적 정서 표현을 많이 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자기인식, 자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면 자녀가 자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정서지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문신 · 김광웅, 2003; 유은희 · 임미옥, 2006; Denham, et al., 1994; Dunn & Brown, 1991; Eisenberg, et al., 1998).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은 자녀가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떤 정서가 적절하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준다. 어머니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아에게 지지적이면, 유아는 스트레스로 인해 과도하게 각성되는 것이 줄어들게 되며, 어머니의 지시나 다른 정보들을 더 잘 처리하도록 동기화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아들은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다루는 데 능숙하게 되며, 부모의 목적이나 기대를 쉽게 인식하게 된다(Dix, 1991). 따라서 이들은 과도하게 각성된 유아보다 자신의 정서와 정서적으로 유발된 행동을 다루는 전략을 더 잘 터득할 수 있게 된다. 김문신 · 김광웅(2003)도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자기조절능력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고, 유은희 · 임미옥의 연구(2006)에서도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셋째,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어머니의 정서 표

현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행동억제와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조절의 관계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영역에 의해 매개되었고, 어머니의 활성화 체계와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인식과의 관계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영역에 의해 매개되었다. 즉 억제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정적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자녀의 자기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활성화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긍정적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자녀의 자기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그리고 행동 억제/활성화 체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교현 · 김원식, 2001; 김문신 · 김광웅, 2003; 소연주, 2001; 오경자 · 양운란, 2003; 유은희 · 임미옥, 2006; Denham et al., 1994; Dunn & Brown, 1991; Eisenberg, et al., 1998; Shamir-Essakow 등, 2004). 즉,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 성향과 정서표현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행동 억제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부정적 정서성을 보이며 활성화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긍정적 정서성을 보인다(김교현 · 김원식, 2001)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정서 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특히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자기 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문신 · 김광웅, 2003; 유은희 · 임미옥, 2006). 따라서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의해 매개된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분적인 관계가 있는 변인들 간의 통합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가 어떻게 유아의 정서지능에 기여하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기여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유아의 정서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들 중 다수가 개별적인 요소를 단편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어머니 영향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와 정서표현성 간의 연계성을 통해 어머니의 영향을 밝힌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정서지능에 기여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게하며,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 체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련성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의해 완전 매개된다는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 정서표현의 기저에는 생래적 측면이 존재하며 생래적 특성은 정서표현과 같은 행동을 통해 유아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어머니 행동억제/활성화체계의 설명력이 적게 나타난 연구문제 1의 결과와 함께 고려해본다면, 행동억제/활성화 체계와 같은 생래적 요인만으로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촉진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생래적 특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임의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만 4, 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어머니의 자기 보고에 의해 측정하였는데 정서표현성의 질적 수준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지와 함께 부모, 자녀의 실

제 상호작용 과정에서 교류되는 정서 표현의 관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행동억제/활성화체계와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교현·김원식(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6(2), 19-37.
- 김문신·김광웅(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6(1), 3-13.
- 김호정(2001).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성혜·김지현·정지나(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동억제/활성화 성향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매개로 하여. **한국영유아보육학**, 49, 41-63.
- 민성혜·유영미(2006). 대학생의 행동억제/활성화 체계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 연구**, 13(1), 83-97.
- 소연주(2001). 어머니의 분리불안 : 어머니의 특성, 아동의 초기 기질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양윤란(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 행동억제 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2(3), 557-576.
- 유은희·임미옥(2006).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97-106.
- 이병래(1998).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선 · 정옥분(200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17-35.
- 이지혜(2001). 행동활성화체계 및 행동억제체계의 민감성과 1/f 음악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7). [http : //www.nso.go.kr](http://www.nso.go.kr)
- Allport, G. W., & Veron, P. E. (1993). *Studies in expressive movement*. New York : Hafner.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lair, C. (2003). Behavioral inhibition and behavioral activation in young children : Relations with self-regulation and adaptation to preschool in children attending Head Start. *Developmental Psychology*, 42, 301-311.
- Brodberg, A., Lamb, M. E., & Hwang, P. (1990). Inhibition : its stability and correlates in sixteen-to-forth-month-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153-1163.
-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319-333.
- Cassidy, J., Parke, R. D., Butkovs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 The rol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the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orr, P. J., Pickering, A. D., & Gray, J. A. (1997). Personality, punishment, and procedural learning : A test of J. A. Gray's anxiety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337-344.
- Davidson, R. J. (2000). Affective style, psychopathology, and resilience : Brain mechanisms and plasticity. *American Psychologist*, 55, 1196-1214.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1994). Preschoolers' casual understanding of emotion and its social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28-936.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3-25.
- Dunn, J., & Brown, J. R. (1991). Relationships, talk about feelings, and the development of affect 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In J. Garber & K. A.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pp.89-108).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Gable, S. L., Reis, H. T., & Elliot, A. J. (2000). Behavioral activation and inhibition in everyda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135-1149.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Gray, J. A. (1994). Three fundamental emotion. In P. Ekman & R. J. Davidson(Eds.), *The nature of emotion : Fundamental questions*(pp.243-247). NY : Oxford university press.
- Halberstadt, A. G. (1991). Socialization of expressiveness : Family influences in particular and model in general. In R. S. Feldman & B. Rime (Eds.), *Fundamental in nonverbal behavior*(pp. 106-160).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r,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 Psychometric support for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 93-103.
- Izard, C., & Malatesta, C. Z. (1987). Perspectives on emotional development : I. Differential emotions

- theory of early emotional development. In J. D. Osofsky(Eds.),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494-554). New York : Wiley.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 167-171.
- Kagan, J., Reznick, J. S., Clarke, C., Snidman, N., & Carcia-Foll. (1984). Behavioral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5, 2212-2225.
- Leen-Feldner, E. W., Zvolensky, M. J., Feldner, M. T., & Lejuez, C. W. (2004). Behavioral inhibition : relation to negative emotion regulation and react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1235-1247.
- Levy, D. (1970). The concept of maternal overprotection. In E. J. Anthony and T. Benedeck(Eds.), *Parenthood : Its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 (pp.387-409). Boston : Little Brown.
- Lewis, M., & Michalson, L. (1983). *Children's emotions and moods : Developmental theory and measurement*. New York : Plenum Press.
- Reissland, N., & Harris, P. (1991). Children's use of display rules in pride-eliciting situat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3), 431-435.
- Reznick, J. S., Kagan, J., Snidman, N., Gersten, M., Baak, K., & Rosenberg, A. (1986).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 A follow-up study. *Child Development*, 57, 660-680.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 Mayer, J. D.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D.(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 Implication for Educator*. New York : Basic Books.
- Scarpa, A., Raine, A., Venables, P. H., & Mednick, S. A. (1997). Heart rate and skin conductance in behaviorally inhibited Mauritia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182-190.
- Schwartz, C. E., Snidman, N., & Kagan, J. (1999). Adolescent anxiety as an outcome of 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 1008-1015.
- Shamir-Essakow, G., Ungerer, F. A., Rapee, R. M. and Safier, R. (2004). Caregiving representations of mothers of behaviorally inhibited and uninhibited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0(6), 899-910.
- Wintre, M. G., & Vallance, D. D. (1994). A developmental sequence in the comprehension of emotions : intensity, multiple emotions, and val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4), 509-514.

---

2007년 4월 30일 투고 : 2007년 7월 3일 채택